

特許紛爭의 代表的事例 몇 가지

特許의 鬪爭은 無限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事件을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에 몇가지 世間的의 注目을 끌었던 特許戰爭의 主要事件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교적 일찌기 일어난 것은 1952年의 소니테이프리코더事件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소니의 商號는 東京通信工業으로 불리어졌다. 이 싸움은 미국의 발콧貿易會社가 소니의 特許에 抵觸되는 美製테이프리코더를 일본에 輸入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販賣, 使用, 陳列, 稼動등을 禁止하는 假處分을 신청하여 이것을 認定한 것에서 비롯된다.

발콧貿易會社는 소니의 特許權이 있음을 認知한데다 輸入外貨割當을 받을 때 故意로 電氣機械의 쿼터에 넣고 事務用品, 自動車部品, 駐日外國人用品으로 하여 輸入認可를 받은 것으로 되어 이것이 事實이라면 同社는 特許戰爭에서도 상당한 作戰을 세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年後인 1972년에 이번에는 逆으로 소니가 西獨에서 訴를 當하는 立場이 되었는데 린헨울림픽의 칼라테레비전 需要를 노리고 輸出增加에 힘을 기우리고 있을 때 現地の 家電業者인 텔레폰겐社가 소니製의 텔레비전 廣告에서 「最初の 포터블칼라테레비전」이라고 稱하는 것을 禁止하는 假處分申請을 하여 法院에서는 처분을 認定받음으로써 日本企業의 輸出功勢에 西獨側이 防戰體制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텔레비전의 特許라고 하면 日本國內企業끼리의 싸움으로서 有名한 親子텔레비전事件(1960年)이 있는데 親子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親텔레비전 1台로부터 30대가량의 子텔레비전을 케이블로 엮매어서 같은 映像을 보내는 시스템으로서 學校의 敎育用 이외에 旅館, 호텔에서 사용된다.

當時 親子텔레비전은 八歐電機가 거의 獨占

하고 있었는데 三成電子工業이 自社의 特許侵害를 하였다는 申請이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特許廳에 의한 特許侵害의 審決도 있고 해서 製造禁止의 假處分이 認定되었다.

또한 弱電關係의 範疇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미니콘의 特許에 관해서 있었던 世界最大의 메이커인 디지탈·이큐먼트社(美國의 DEC)와 日本의 톱 메이커인 富士通의 特許戰爭도 有名하다.

한편 製造業界도 꽤 豊富한 戰史를 갖고 있다.

1954年 11月 美國의 大醫藥品·化學메이커인 아메리칸·사이아나밋트社는 日本의 明治製菓를 相對로 하여 假處分申請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明治製菓에서 製造하고 있는 「사이크린 明治」가 사이아나밋트社가 가지고 있는 抗生物質인 오레오마이신의 製造特許에 抵觸되고 있다는 것이 그 理由였었다.

다음해 9月 東京地方法院은 이것을 認定하고 「사이크린 明治」의 제조, 판매를 禁止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시 사이아나밋트社는 1970年 三井東壓化學을 同系統의 事件으로 하여 訴를 提起했는데 이것은 「사이아나밋트社——武田藥品工業」의 聯合과 「라시엘社(美國)——三井東壓化學」聯合戰으로서 필요로 하는 미국의 技術이 일본에서 동시에 復活되었던 것이다.

醫藥品은 아니지만 사이아나밋트社는 同社로부터 아크리로나리톨纖維의 技術을 導入한 日本 엑스란을 통하여 60年代初에 旭化成의 國產技術에 挑戰하는 정도로 사이아나밋트社는 「4 메라민事件」의 主役으로서 대단히 好戰的이었다.

西獨의 베에린가존社도 日本의 北陸製藥(65年)이나 山之內製藥을 相對로 特許戰爭을 벌인 歷史를 갖고 있으며 前者는 鎮痛鎮痙劑의 特許를 둘러싸고 商品名도 베에린가존社로부터 輸入하여 田邊製藥의 것이 「부스고방」, 北陸製藥의 것이 「부치루방」으로 複雜한 臟藥의 特許紛爭이었다.